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34권 21호(가해) 2014.4.20

[묵상]



예수님의 빈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라, 춤들을 추자."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그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삶을 최대한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 비결을 가르쳐 주고 백 살, 이 백살,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이어 받아 다시 난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삶을 삽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고 주저앉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송두리째 바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에 힘입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고 힘든 세상과 싸워 나갑시다.
용기를 잃었다면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납시다.
알렐루야!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 미사(사순시기)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매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부활대축일
학생미사
&
낮 미사

본당 전체 교우들을 위한
교중 미사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10,34-37-43

화답송 ①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 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①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②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③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4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왔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궁계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 음 ①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②

복 음 요한(John) 20,1-9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입당	169
봉헌	261
성체	306
파견	170

루카 복음 2장 51절에도 반복되는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는 그
의 훌륭한 인격을 드러낸다. 사실 이해할수 없는 일에 당황하지
않고, 화나는 일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있다면, 또한 억울한 일
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며 가슴 깊이 담아
둘 수 있다면 대단한 인격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성모 마리아의 성덕의 절정은 겸손이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여종을 자처하셨을 뿐 아니라(루카
1,48 참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아기 예수님을
중심에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에서 마리아께서는 항상 아드님의 뒷
전에 조용히 머물러 계셨다. 이와 같은 겸손 역시 모든 그리스
도인이 힘을 다하여 추구하여야 할 성덕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교회 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자들은 눈을 들어 뽑힌 이들의 온 공동체에 덕행의 모범으
로 빛나고 계시는 마리아를 바라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한 성모 공경에 대해 제2차 바
티칸 공의회는 거짓 과장이나 협소한 마음을 삼가도록 권고한
다. 아울러 전통적인 성모 신심과 관습을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전례적 공경을 드리도록 강조하고 있다.

“거룩한 공의회는 이러한 가톨릭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며,
동시에 복되신 동정녀와 성인들의 성상 공경, 특히 전례적 공경
을 적극촉진한다.

여러 세기의 흐름에서 교도권이 권장하여 온 성모 신심의 실천
과 관습을 중시하며, 지나간 시대에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녀
와 성인들의 성상 공경에 관하여 결정한 것들을 경건하게 지키
도록 교회의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

그리고 신학자들과 하느님말씀의 선포자들은 천주 성모의 독
특한 품위를 숙고하는 데에서 어느 모로든 온갖 거짓 과장이나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을 애써 삼가도록 간곡히 권고한다.

교도권의 지도 아래에서 성경과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
과 교회의 전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진리와 성덕
과 신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지향하는 복되신동정녀의
임무와 특권을 올바로 밝혀야 한다.

말론든 행동으로든 갈라진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교회의
참된 교리에 대하여 오해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힘써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신심은 쓸모없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허황한 맹
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
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천주 성모의 탁월함을 인정할 수 있고,
또우리 어머니께 대한 자녀다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덕행을 본받을 수 있다.”(교회 헌장, 67항).

<◆계속>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요한 20.1) 세 사람의 땀박질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여인”이고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던” 여인이며(루카 8,1-3 참조) 십자가 아래에 증인으로 있었던 여인(루카 23,49 참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추종했던 여인, 평생을 예수님께 사로 잡혀 산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뒤에 열 두 제자 중의 으뜸이었고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마태 16,18 참조) 무한한 신뢰를 보내셨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의 겉을 떠났을 때도(요한 6,66 참조) 오히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요한 6,68)라고 단호하게 신앙고백을 했던 열정 넘치는 제자,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도 최후 만찬 때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요한 13,23) 있었고,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는 멀리 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십니다.”(요한 21,7)하고 베드로에게 소리치듯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역시 사랑으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요한 20,1), 세상은 부활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이름을 부르신 이들, 그분과 함께 빵을 나누던 사람들, 그리고 평화의 말씀을 건넸던 사람들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추종했고 열정을 드렸으며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체험했던 부활의 현장입니다. 실패, 좌절, 낙담, 원망, 분노....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게 되었고, 언제나 따르고자하는 추종의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은 다시 한 번 일어나 뛰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정이 가끔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 되었어도, 배신의 그림자가 있었어도, 자신의 잘못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어도, 열정에겐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또 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달립니다. 아픔도 있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베드로를 막지 못합니다.

사랑의 마음은 변하질 않습니다. 그분의 힘겨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현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 불러 주신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뛰어와 할 시간입니다. 아직 어둡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른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강귀석 신부 / 서울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이젠 밖으로

나는 매 순간 일곱 번씩 칠백 번도 넘게 용서합니다.

그 용서는 성경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미움 없는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코린토 전서 안에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 용서와 사랑은 문장 속에 갇혔다 생각했는데

정작 책 속에 갇힌 것은 나였습니다.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부활대축일) 전례봉사자

다음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주일학교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유현자 안나	주일학교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5독서자 제7독서자	박진수 스테파노 전하현 마리아	주일학교	이희경 크리스티나
서간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 토런스 서 3반

다음주(하느님의 자비주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月月月月月 알렐루야, 알렐루야 月月月月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Alleluiah.**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본당의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어르신들께 부활절 선물 전달

예수님 부활을 더욱 기쁘고 뜻있게 보내기 위해 본당의  
 어르신들과 이웃 노인아파트(마리코파와 카슨)에 부활제란,  
 떡, 떡국떡, 김치, 김 등을 선물로 나눕니다.  
 본당신부님, 수녀님, 사목회 총회장, 임원들이 함께 전달합  
 니다. 준비에 도움을 준 사목회 사회복지분과위와 빈첸시  
 오회, 레지오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달일시 : 오늘 부활대축일 미사후 오후 3시

◆ 요셉회 4월 정기모임

- 일시 : 오늘(20일) 부활대축일 미사후 강당
- 부활절 선물 드립니다.
- 문의: 정기은 비오 요셉회 회장 ☎(310)780-2789

◆ 백삼위신자들의 예술작품 전시회

- 일시 : 4월27일(주일)~ 5월11일(주일), 강당
- 작품내용 : 수채화, 유화, 묵화, 사진작품, 서예 등
- 신청서제출 : 오늘(20일)까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e메일 myjindale@hotmail.com 또는 전화신청 바람
- 작품제출 : 4월26일(토) 오후 1시~2시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2014년 본당 여성피정

- 일시 : 5월3(토) 오전 9시45분~오후 2시

- 주제 :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부제 : 봉사자의 자세, 행복한 삶)
- 강사 :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오마우라 수녀님
- 대상 : 백삼위 한인성당 모든 여성교우
- 주관 : 소공동체, 성모회, 안나회
- 회비 : \$10(점심, 간식제공)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권순길 세실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예비자 교리반 모집중입니다.

- 모집 및 전교기간 : 4월30일까지
- 환영식 : 4월27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5월1일~12월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 12월21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백삼위 성모회표 된장, 고추장 맛보세요.

- 판매일시 : 4월26일(토), 27일(주일)
- 품목 : 된장, 고추장, 고구마, 새우젓
- 문의 : 권순길 체칠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자모회, 음식 및 유기농 비누 판매

- 일시 : 5월4(첫주일) 친교강
- 친교점심 : 햄버거(\$3)
- 판매품목 : 도넛 & 커피, 냉동민어, 유기농비누
- 문의 : 한길선례 스펀라스티카 자모회장 ☎(310)782-102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20일(부활대축일) : 전신자들과 친교점심 나눔  
 (토런스 동구역 봉사 카레라이스 \$0)  
 \* 주일학교(6학년 칠리도그)
- 4월27일(주일) : 토런스 서 1.3반(짜장밥 \$3)  
 \* 주일학교(5학년 피자)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     |
|-----|-------------------|-----|-----|--------------|-----|-----|
| 교무금 | 권태만               | 금동군 | 김대우 | 김성택          | 김재희 | 김종훈 |
|     | 김주량               | 김현숙 | 김형순 | 김효진          | 박광자 | 박선희 |
|     | 박영희               | 박인식 | 반비오 | 방정복          | 송기철 | 송재훈 |
|     | 엄영희               | 엄정자 | 오상준 | 오세원          | 오신재 | 윤희동 |
|     | 이귀분               | 이미경 | 이상철 | 이영희          | 이인두 | 이일길 |
|     | 이재용               | 익명  | 장영우 | 정규숙          | 정혜영 | 조준제 |
|     | 주용순               | 지경수 | 차인수 | 최기호          | 최상만 | 최의수 |
|     | 최진수               | 한창주 | 한혁수 | 한길선례         |     |     |
|     |                   |     |     | 합계 : \$5,030 |     |     |
|     | 주일미사 헌금 : \$2,863 |     |     |              |     |     |

|                                           |      |     |     |     |     |     |
|-------------------------------------------|------|-----|-----|-----|-----|-----|
| 성전헌금                                      | 권태만  | 금동군 | 김광자 | 김대우 | 김재희 | 김주량 |
|                                           | 김현숙  | 김효진 | 박광자 | 박선희 | 박인식 | 반비오 |
|                                           | 방정복  | 엄정자 | 오세원 | 이귀분 | 이미경 | 이상철 |
|                                           | 이영희  | 장영우 | 정규숙 | 정혜영 | 조준제 | 주용순 |
|                                           | 지경수  | 차인수 | 최기호 | 최상만 | 최진수 | 한혁수 |
|                                           | 한길선례 |     |     |     |     |     |
|                                           |      |     |     |     |     |     |
| 합계 : \$2,490                              |      |     |     |     |     |     |
| 감사헌금 : \$300(송기철 김대우)    한남체인도네이션 : \$310 |      |     |     |     |     |     |

## 공지사항

###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시상식 "축하합니다."

- 일시 : 오늘 부활대축일 학생미사중
- 수상자 : 학생 29명, 교사 2명
- 필사복음서 : 루카복음(영어)

###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용인원 : 40명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 주관 : 한국어진흥재단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 대상 : 한국학교 재학생(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 주제 : '우리가족' (3분이내에 자유롭게 말하기)
- 참가신청 : 5월19일까지 ksaaca@hotmail.com
- 문의 : 미주한국학교연합회 ☎(213)388-3350

"새 신자 환영합니다."

## 남가주 소식

### ◆ 제 73차 남가주 한인M.E. 첫 주말

- 일시 : 5월2일(금)~4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소재 아시아 피정센터
- 수강비 : 부부당 \$400(숙박/식사비 포함) \*마감 : 4월22일
- 접수 : 백삼위 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병옥 올리아

### ◆ 2014 FIAT 장학금 및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안내

- 신청자격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신앙공동체의 열심한 봉사자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GPA 3.0 이상
- 신청마감 : 5월31일(<http://www.fiat.org>)
- 문의 : fiat@fiat.org ☎(714)772-3995 ex 106

### ◆ 남가주 한인M.E. 제13회 골프잔치

- 일시 : 5월31일(토) 낮12시 티오프, 샷건 플레이
- 장소 : Oak Quarry 컨트리클럽
- 참가비 : \$100 \* 신청 : 각본당 ME 대표부부
- 경품과 재미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6월7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1920 S. Bronson Av. LA)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 이상훈 신부(LA대교구, 남가주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 대상 : 남가주 전 신자 ● 내용 : 찬미, 미사, 특강, 안수
- 회비 : 없음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백삼위-강혜원 아네스)

##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                                        |
|-------------------------------------|-----|--------------------------|----------------------------------------|
| 차 장                                 |     |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                                        |
| 차 장                                 |     |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                                        |
| 구역/장                                | 번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br>539-3377    | 1   | 이순자 비비안나<br>213-675-0498 | 남명자 데레사 328-0847<br>4/12(토) 오후 6시      |
|                                     | 2   | 김찬구 요한<br>701-6343       | 유선식 필립보 701-9262<br>4/12(토) 오후 7시 성당   |
|                                     | 3   | 박현희 프란치스코<br>592-4739    |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br>4/11(금) 오후 8시    |
| 토런스 서<br>엄혜은<br>도로테아<br>200-0512    | 1   | 강인모 테오도시오<br>780-3258    |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br>4/12(토) 오후 6시    |
|                                     | 2   | 심옥방 미카엘라<br>999-5808     |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br>4/12(토) 오후 6시     |
|                                     | 3   | 장광미 프란체스카<br>617-1132    | 방미숙 마리아 617-1132<br>4/11(금) 오전 10시30분  |
| 토런스 남<br>최옥희<br>데레사<br>508-2912     | 1   | 박문주 엘리사벳<br>968-8280     | 신성주 엘리사벳 968-8280<br>4/12(토) 오후 6시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이윤옥 마리아 634-6923<br>4/16(수) 오전 11시     |
|                                     | 3   | 조정선 마리아<br>945-8204      | 조정선 마리아 945-8240<br>4/11(금) 십자가의 길     |
| 토런스 북<br>조화숙<br>안젤라 213<br>272-8393 | 1   | 정병옥 올리아<br>404-1607      | 서성용 베드로 800-3709<br>4/14(월) 오후 7시      |
|                                     | 2   | 1반과 같음                   |                                        |
| 하버 카슨<br>윤희동<br>안토니오<br>365-7871    | 1/2 | 조소영 수산나<br>804-7645      | 이행자 리드비나 804-7645<br>4/12(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남경희<br>베네딕다<br>384-3289    | 1   | 박종선 리비나<br>213-700-6983  | 오영섭 스테파노 213-700-6983<br>4/12(토) 오후 7시 |
|                                     | 2   | 금유미 크리스찬시아<br>482-9108   | 금유미 크리스찬시아 482-9108<br>4/11(금) 십자가의 길  |
|                                     | 3   | 정종미 클라라<br>818-1799      | 정판영 레오 818-1799<br>4/5(토) 오후 7시        |
|                                     | 4   | 이귀란 아네스<br>617-3568      | 이귀란 아네스 617-3588<br>4/8(화) 오전 10시30분   |

### 이번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 다음주 단체모임

4월 사목회

##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안에 간직하십시오.” (필리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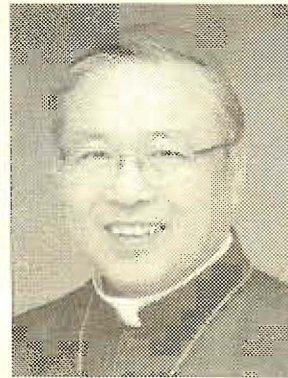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녘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주님의 빛과 생명,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들은 본래 배움도 짧았으며, 겉 많고 나약한 보통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을 받고 고초를 당하실 때에는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루카 10,27 참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살아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감히 나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시복을 결정하신 ‘하느님의 종 124위’를 보더라도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이들도 있지만,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했던 천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죽음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으며, 사형장에서는 오히려 얼굴에 기쁨의 빛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전에 가난하고 유약해 모든 이들에게 비웃음을 샀던 조용삼 베드로(?~1801)는 마지막 형벌 때 박해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두 명의 주인이 없고, 사람에게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천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뿐이며,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선 순교자들을 이처럼 굳건하게 변모시킨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굳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삶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으로 여긴다고 우려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 안에는 결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고, 지상의 재물에서는 결코 안전을 찾을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가능한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축적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행복이라 생각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사랑과 나눔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교황 프란치스코, 삼종기도 강론, 2014년 3월2일) 또한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고 개인주의가 만연 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른 이들을 보듬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한결을 더 나아가 “반대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헐뜯는 이들을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교황 프란치스코, 연중 제7주일 미사 강론, 2014년 2월23일) 사도들과 한국의 순교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신앙인은 용감하게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기를 성령께 청합시다. 재물이냐 명예와 같은 온갖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소중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바로 순교이며 부활의 삶이 됩니다.

이번 우리나라를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라는 주제로 사목방문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생기를 얻고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미래 교회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이번에 체험한 신앙을 바탕으로 삼아 우리 교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인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에 시복되는 124위 복자와 이미 시성된 103위 성인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부활의 믿음 안에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활시기를 맞이하여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여(필리 2,5 참조) 내적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아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온 세상과 한반도, 특별히 복녘땅에 주님의 평화와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의 전구를 청합니다.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